



알코올 중독

14 김재현 | 16 장신미 | 17 구지윤
17 김가영 | 17 박유나 | 17 현지희



INDEX



01

알코올 중독이란?



02

영상



03

알코올 중독 현황



04

알코올 중독 정책의 문제



05

외국 사례 및 해결방안



06

참고문헌

알코올 중독이란?



W.H.O(세계보건기구)의 정의

“통제의 손상을 주요 특징으로 하며 알코올 사용에 대한 내성 증가,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금단 증상, 충동적 음주 등을 보이는 경우
‘알코올 의존 증후군’이라 한다. ”

02

알코올 중독 영상

02

영상

MODERN TIMES PPT.



문답의 용기있는 고백

저도 사실 술버릇이 있어요

알코올 중독이란?



알코올 중독의
발생 원인

—

01

—

생물학적 · 유전적
원인

02

—

심리학적 원인

03

—

문화적 원인

01

—
생물학적 · 유전적
원인
—

알코올중독은 가족력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매우 흔함
알코올중독자의 자녀는 일반인의 자녀보다도 알코올중독이 될 가능성이 4배 높음

02

심리학적 원인

자존감이 낮고 수치심을 잘 느끼므로
스트레스, 긴장의 해소, 고통의 해방을 위해 술에 더 의지하게 됨

03

가장 핵심적인 요인
“문화적 원인”

1. 음주에 대한 관용적인 태도와 문화
2. 사회생활, 조직생활에 필수적인 음주문화
3. 불건전한 음주문화

음주에 대한 관용적인 태도 문화

출처 : 건강행동학회의 조사(2017)
: 보건복지부(20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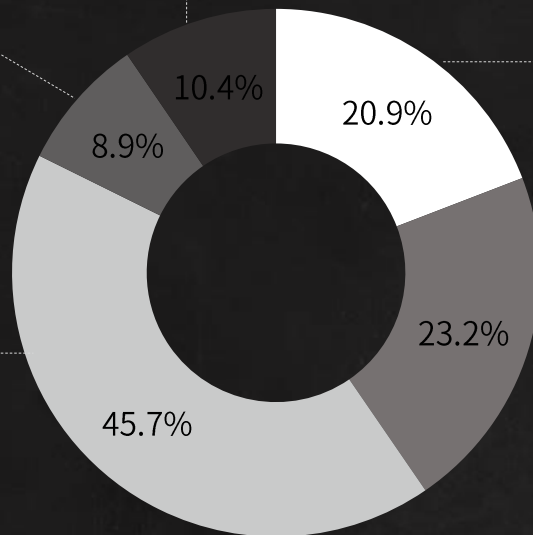
술에 취한 뒤의 행동은 용서해도 된다

상대방이 원하는 술을 거절하면 예의에 어긋난다

고등학생이 음주를 해도 된다

술은 좀 취해도 된다

낮술을 마셔도 괜찮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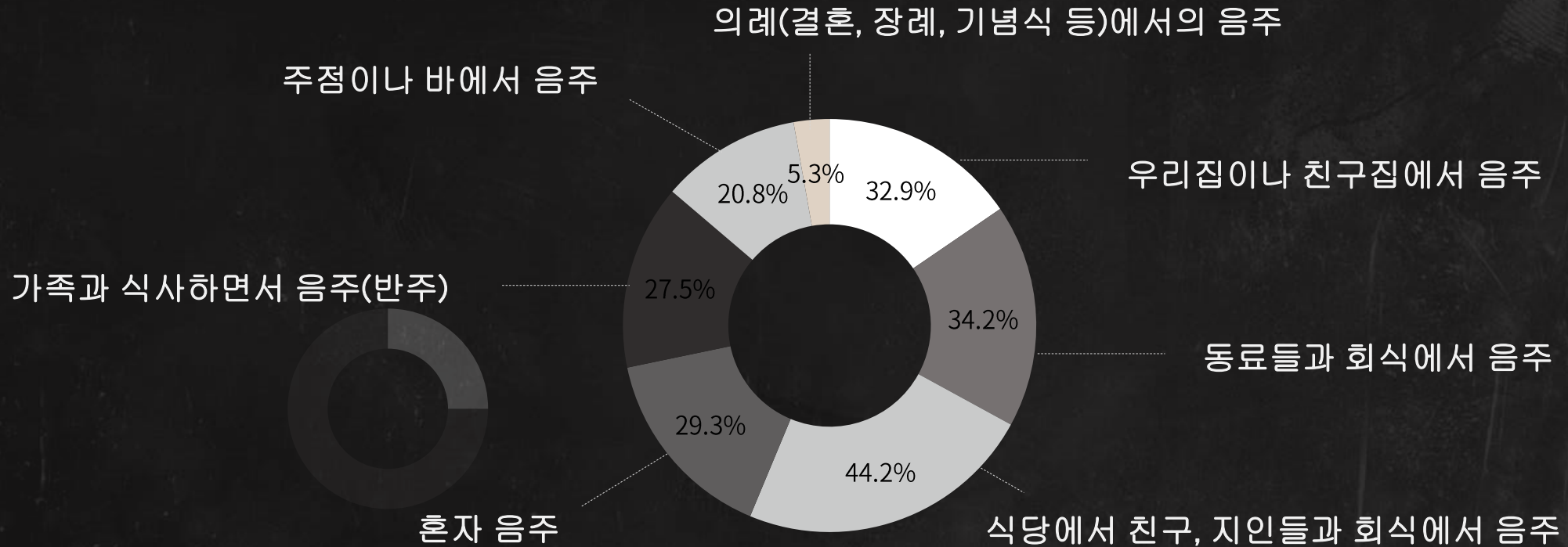


2017건강행동학회의 우리나라 음주문화 조사에 따르면,
술은 좀 취해도 된다는 의견이 45.7%, 낮술을 마셔도 괜찮다는 의견이 23.2%로
우리나라의 음주에 대한 태도와 문화가 관용적임을 알 수 있음

‘사회생활’, ‘조직생활’에 필수적인 음주 문화

출처 : 건강행동학회의 조사(2017)
: 보건복지부(2017)

월 2회 이상 음주하는 비율이 가장 높은 상황



알코올과 건강행동학회의 2017년 자료조사에 따르면 식당에서 친구, 지인들과 회식에서 음주하는 비율이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동료들과 회식 시, 우리집이나 친구집에서 음주 등으로 사회생활, 조직생활과 관련하여 음주를 많이 하게 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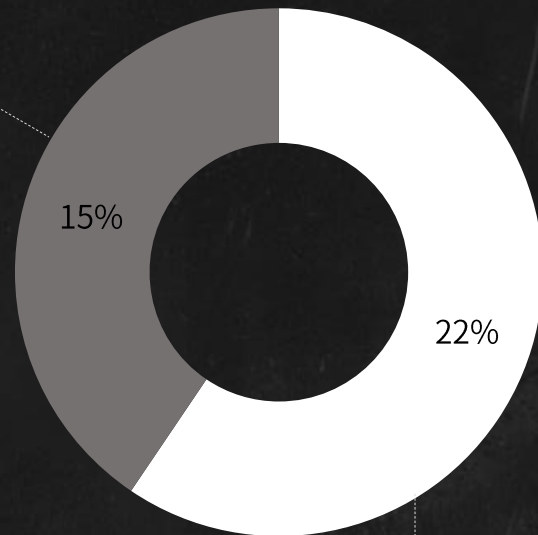
불건전한 음주 문화

잔돌리기, 잔주고 받기, 내림술 등과
같은 강권을 경험한 적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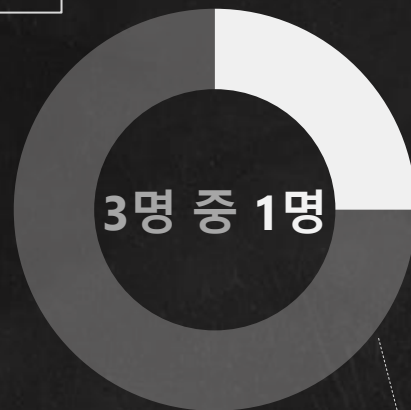
집단음주문화로 인한 과음, 폭음과 이로 인한 피해 증가

: 우리나라의 음주문화는 교제나 친분을 쌓기 위한 수단으로 피할 수
없기 때문에 불건전한 음주문화의 심각성이 증가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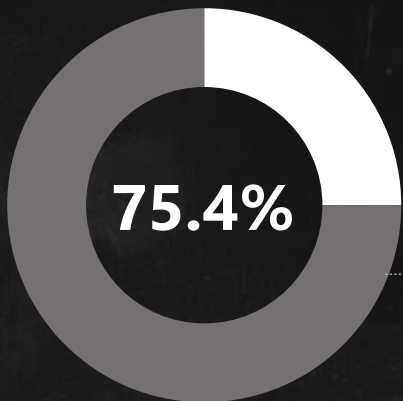
: 회식자리에서 ‘돌림주’, ‘사발식’, ‘폭탄주’, ‘원샷’ 등은 음주 시 경험
하게 되는 불건전한 집단음주문화 중 하나로 폭음을 유발하며 폭음은
폭행 등 다양한 문제를 유발함.



폭탄주(2종류 이상의 술을 섞어
마시는 행위)를 마신 적이 있다



원샷(한꺼번에 술잔을 비우기)을 경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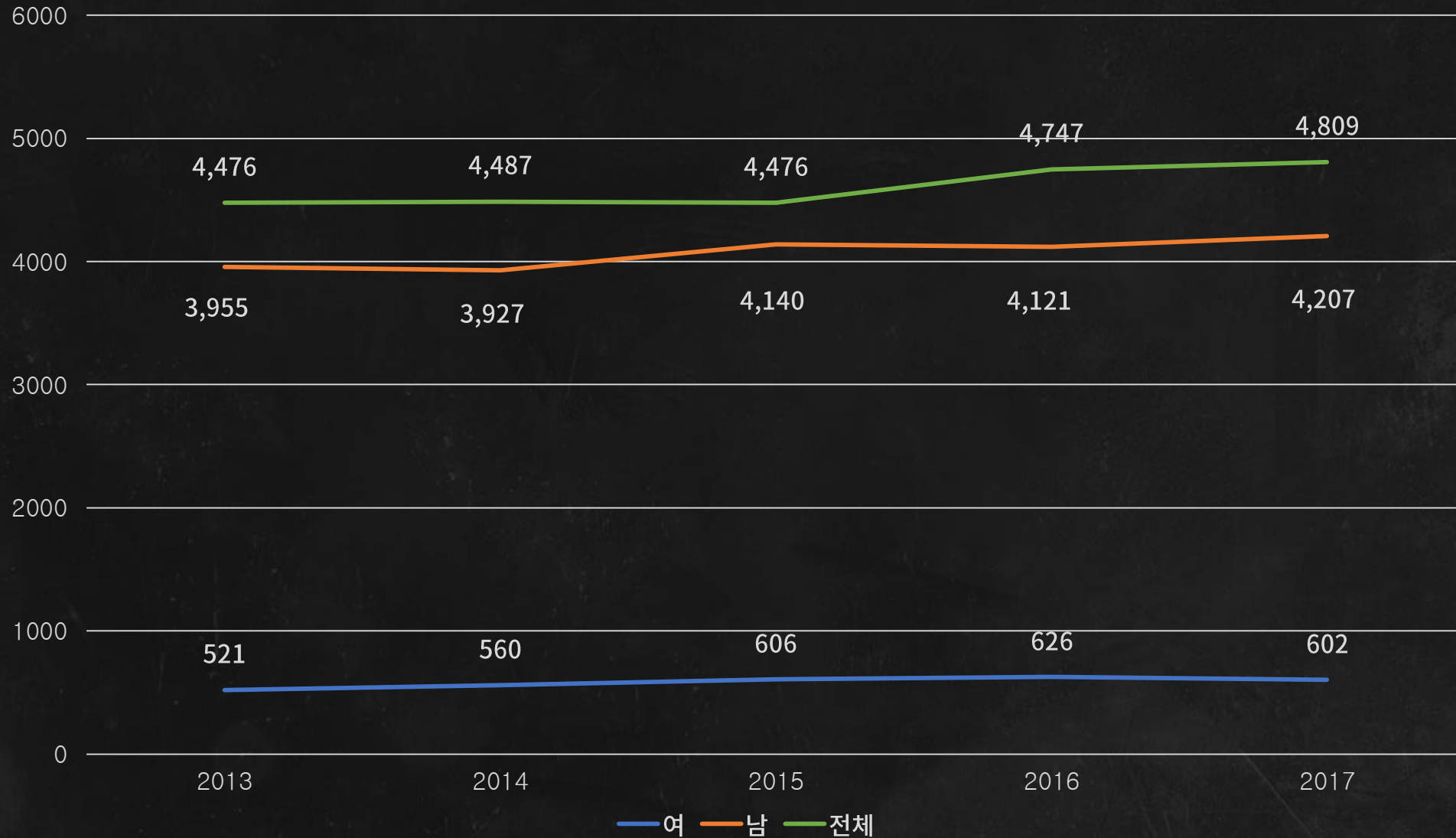


어쩔 수 없이 경험한 음주행위에 응답자가
위 사항들 중 한 가지 이상의 경험이 있었다고 응답

03

알코올 중독의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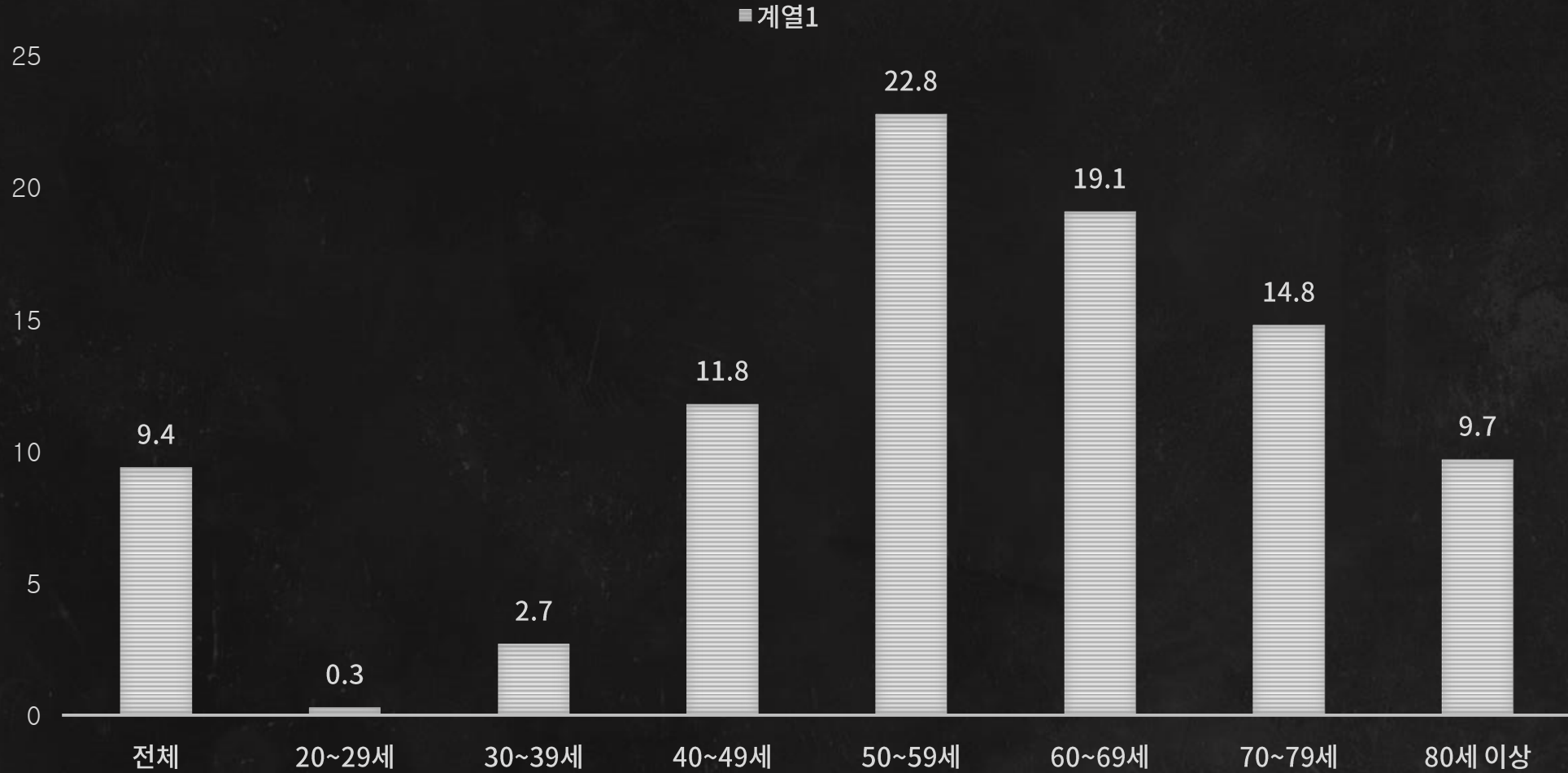
“알코올 관련 질환 전체 사망자수(명)”



- 알코올은 담배 성분인 비소, 카드뮴과 같이 1군 발암물질이며 중독물질로, 음주로 인해 매일13명이 사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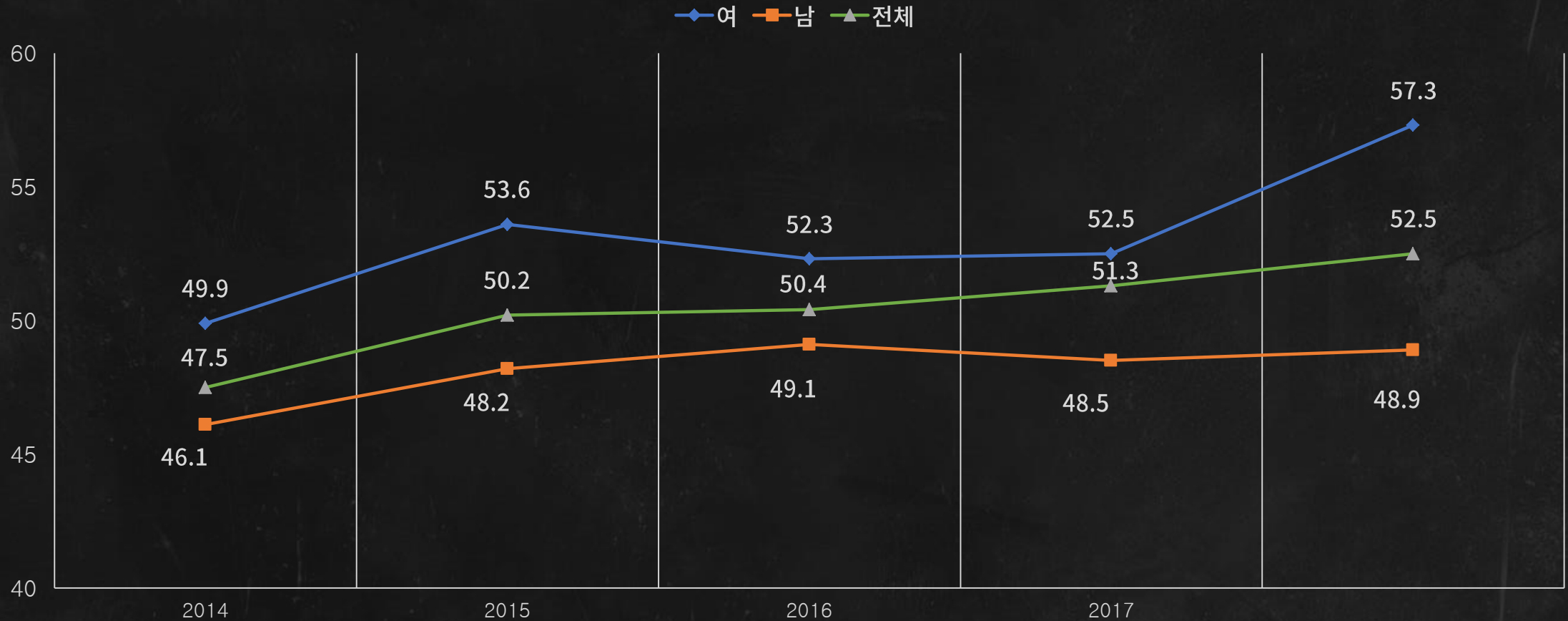
- 알코올성 간질환 등 알코올 관련 사망자수 = '17년 기준 총 4,809명

“연령별 인구 10만 명당 사망률(명)”



- 알코올로 인한 사망은 한창 일할 나이인 30대부터 급증하여, 50대에 가장 많음

“청소년 현재 음주자의 위험 음주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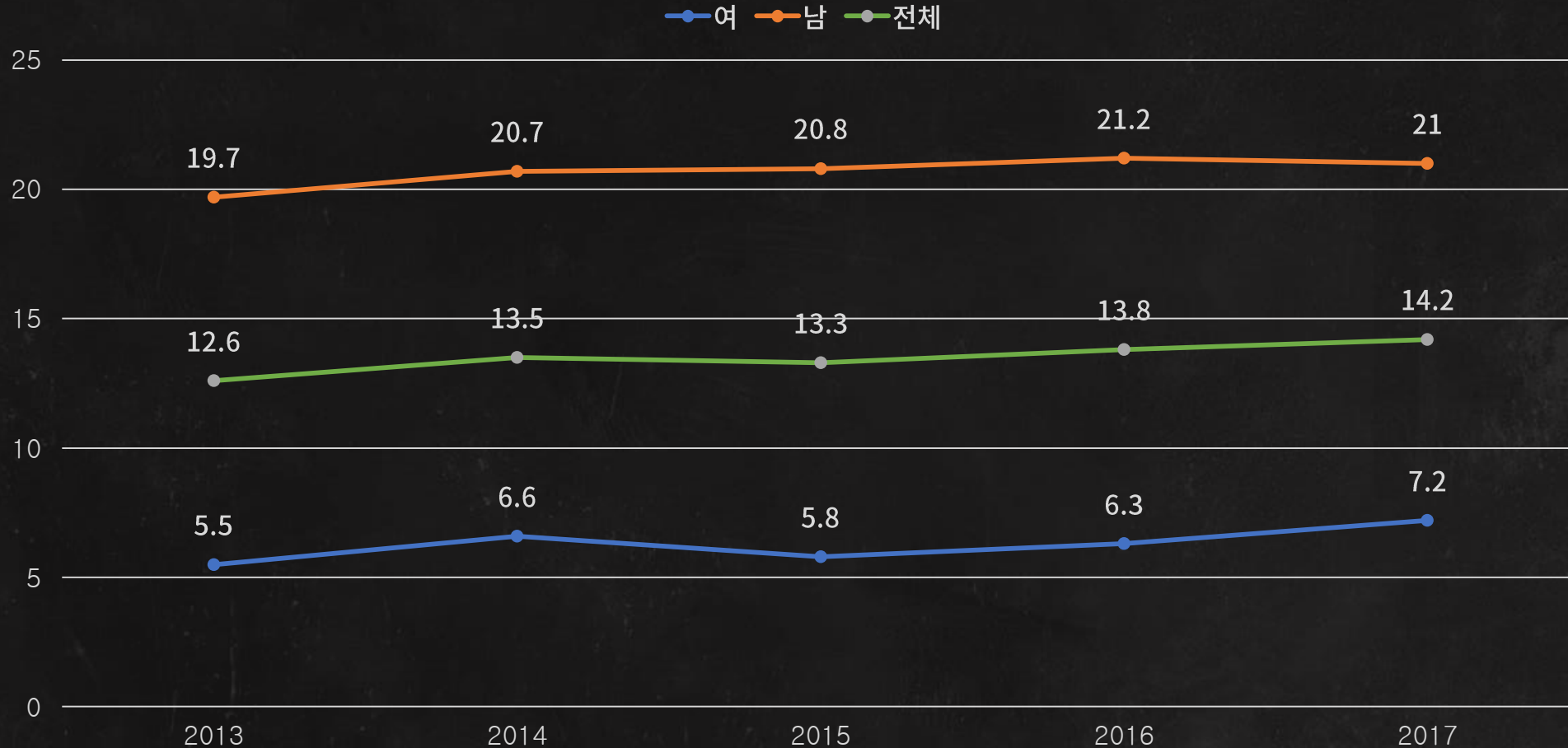
- 알코올 중독 가능성이 높아지는 청소년의 처음 음주연령은 평균 13.3세,

현재 음주자는 16.9%로 이중 2명 중 1명(52%)은 위험음주자임

음주시작연령이 **13세 이하로 낮을수록**, 문제음주자일수록 **자살생각이나 자살시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정슬기, 2011),

이 밖에도 **우울, 낮은 자존감 형성**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

“성인 성별 고위험 음주율(%)”



- 남성의 고위험 음주율은 높게 유지되고 여성은 지속적으로 증가함
 - 20대 여성의 경우 10명중 1명이 고위험 음주자임
- **여성 알코올의존자의 불안, 우울 정도 및 자살 시도가 남성 에 비하여 높고, 남성 알코올의존자에 비하여 지지체계가 부족하** 다는 점이 심각한 문제임



알코올 중독 관련 기관 및 시설

알코올 중독 기관 및 시설	내용
알코올질환 전문병원	단주 생활을 통해 건강하게 사는 방법 터득하도록 돕고, 정상적인 사회 복귀가 최종 목적
중독재활시설	치료회복 프로그램과 주거제공이 함께 이뤄지는 입소생활형 시설
주간재활시설	가정에서 출퇴근하며 주간 동안 회복 치료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사회복귀를 도모
직업재활시설	중독자들이 실제 운영되는 사업장에서 직업훈련을 받거나 새로운 직종으로의 훈련을 받아 취업을 하도록 지원하는 시설
주거제공시설	10인 이하의 시설로 일반가정과 비슷한 물리적 환경에서 생활 낮 시간 동안 이용시설이나 취업활동도 가능
공동생활가정	사회적 독립을 위한 최종단계의 시설로서 주거 공간을 제공하여 낮 시간에는 이용시설 및 취업활동 가능

03

알코올 중독 현황

전국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현황표

지역	계	16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개소		50	4	3	2	5	3	2	7	3	1	2	2	2	2	2	5	2

전국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의 현황을 보면 울산은 최대 7개가 있고,
가장 적은 지역은 두 개가 있어 지역 편차가 크며,
알코올 중독 관리자를 관리하기에 전반적으로 수가 적음을 알 수 있음

세부사업 및 서비스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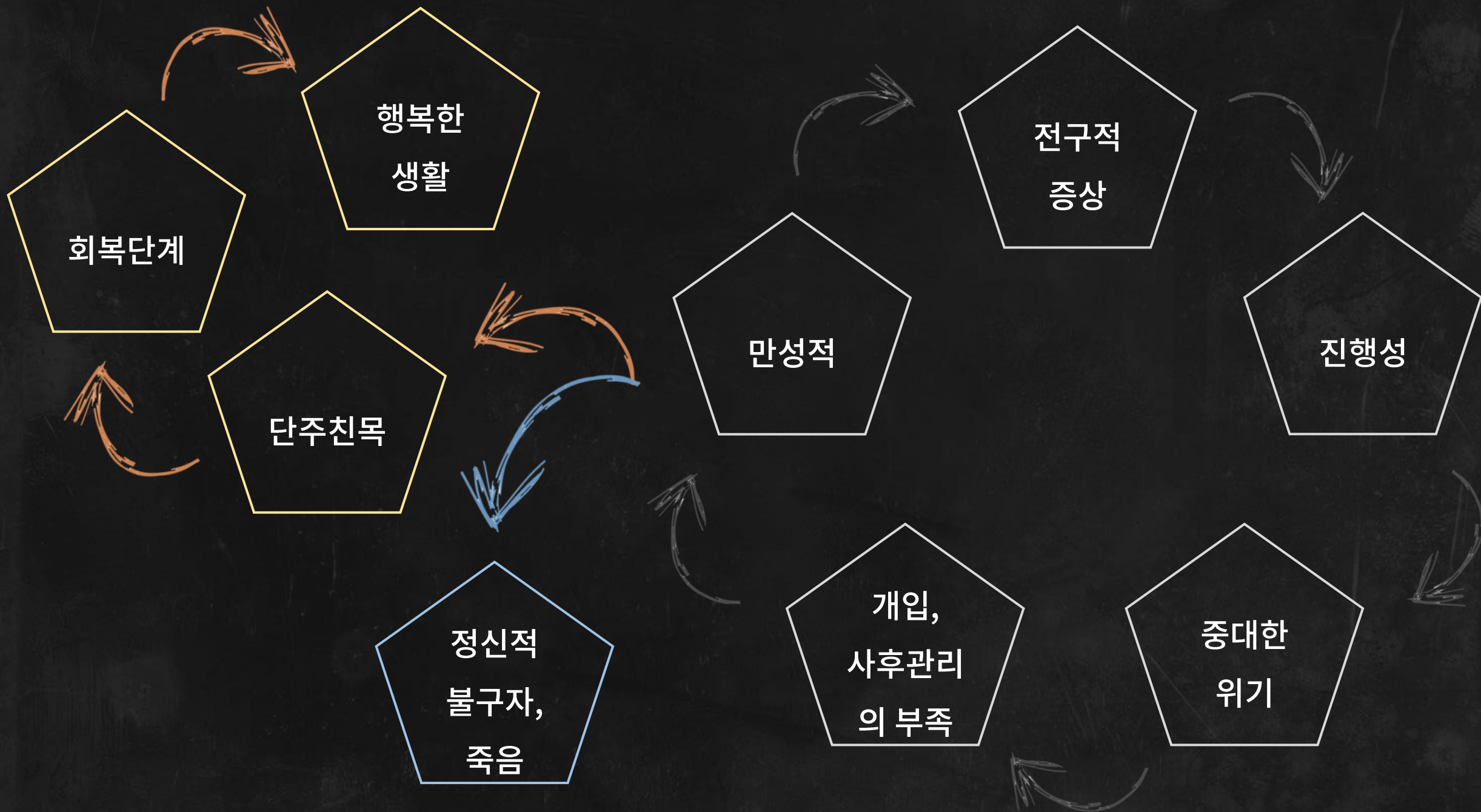
영역	서비스내용
중독 조기발견 및 개입서비스	· 신규 발견 및 이용체계 구축 · 고위험군 조기발견 및 단기개입 서비스
중독질환 관리사업	· 사례관리 서비스, 위기관리 서비스, 직업재활 서비스 · 재활프로그램
중독질환 가족지원사업	· 신규 가족 발견 및 이용체계 구축 · 사례관리 서비스, 위기관리 서비스, 가족모임 지원서비스 · 가족 교육 및 프로그램
음주폐해예방 및 교육사업	· 아동· 청소년 예방교육사업 · 직장인 중독폐해 예방지원사업 · 지역주민 예방교육사업 · 인식개선 및 홍보 사업
지역사회 안전망 조성 사업	· 보건복지, 경찰 및 응급지원 네트워크 구축 · 지역법무 연계· 협력체계 구축 · 자원봉사 관리· 운영체계 구축 · 지역 인프라 구축
지역진단 및 기획	· 지역사회 진단 및 연구 · 지역특성을 고려한 특화 서비스 기획 · 자원조정 및 중재



04

알코올 중독의 정책 및 서비스의 문제점

1. 조기개입을 어렵게 하는 사회적 배경의 문제
2. 알코올중독관련 시설의 미흡으로 인한 문제
3. 개입 및 사후관리(재발) 미흡으로 인한 문제



알코올 중독자는 잠재적 범죄자? 무조건 격리보다 치료가 우선

입력 2019-05-21 16:35 수정 2019-05-21 16:35

알코올 중독자, 조현병 환자 등이 저지르는 비극적 범죄가 잇따르면서 정신질환자의 사회적 격리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정신질환자에 대한 혐오가 만연하면 환자를 사각지대로 내몰 수 있다고 우려한다.



김석산 다사랑중앙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원장은 "정신질환자에 대한 국민 인식이 악화되면서 어떻게 치료할 것인가가 아니라 어떻게 격리할 것인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며 "정신질환자를 향한 사회적 비난과 낙인이 계속되면 환자가 숨고 움츠러들어 제대로 된 치료를 받을 기회가 박탈될 우려가 있다"고 했다.

평생 정신질환을 한 번 이상 호소하는 한국인은 25.4%다. 성인 4명 중 1명이 평생 한 번 이상 정신건강 문제를 겪는다는 의미다. 가장 흔한 질환은 알코올 중독이다. 2016년 정신질환실태 역학조사에 따르면 17개 정신질환 중 알코올 의존, 남용 등 알코올 사용 장애를 평생 한 번 이상 경험한 한국인 비율이 12.2%로 가장 높았다. 국내 환자는 139만 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알코올 사용 장애 환자 중 정신의료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 비율은 12.1%로 정신질환자 중 가장 낮다. 알코올 사용 장애가 가장 흔한 질환이지만 치료를 제대로 받지 않는다는 의미다. 김 원장은 "알코올은 조현병을 비롯한 우울증, 불안장애 등 각종 정신질환을 일으키거나 악화시키는 원인 중 하나지만 한국에서는 음주문화에 관대해 술 문제를 치료가 필요한 질병이 아니라 의지나 습관의 문제로 치부하는 경향이 높다"고 했다. 그는 "이런 사회 분위기에서 정신질환자를 잠재적 범죄자로 보는 건 치료 문턱을 더 높게 할 뿐"이라고 했다.

많은 알코올 중독 환자가 치료받지 않는 이유는 알코올 중독 치료에 잘못된 이해와 편견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대표적 편견이 입원 치료다. 김 원장은 "과거에는 알코올 중독을 전문으로 하는 병원이 없다 보니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는 경우가 많았다"며 "술과 격리를 위해 환자를 병원에 가둬놓는 것은 치료가 아니라 잠시 술을 마시지 못하도록 하는 임시방편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입원 기간 술을 마시지 않은 환자가 퇴원 후 술을 마시는 악순환이 반복돼 알코올 중독은 '치료가 안 되는 병'이라는 인식만 커졌다는 것이다.

알코올 중독은 단순 입원과 약을 치료만으로 치료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김 원장은 "알코올 중독 치료 목적은 환자를 술과 사회로부터 격리시키는 게 아니라 술을 끊고 다시 가정과 사회로 복귀해 온전한 사회 구성원으로 살아가도록 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를 위해 술에 의존해 살아온 삶을 변화시킬 체계적 교육과 상담이 필요하다. 그는 "정신질환 치료 문턱을 낮추고 지속적인 치료를 통해 그들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국가 차원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지현 기자 bluesky@hankyung.com

1.조기개입을 어렵게 하는 사회적 배경의 문제

“알코올 중독자는 잠재적 범죄자? 무조건 격리보다 치료가 우선”

내용

= 신질환자에 대한 국민인식이 악화되며,
치료보다 격리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음

= 이렇듯 정신질환자에 대한 사회적 비난과 낙인이 계속되면 환자가 움츠러들어 치료받을 기회가 박탈될 수 있음

= 한국인의 25.4%는 평생 정신질환을 한 번 이상 호소하며,
가장 흔한 질환은 알코올 중독임

40대 여성, 죽음까지 몰고 간 '알코올중독'... 치료법 무엇인가?

이재나 헬스조선 기자 | 2017.04/11 14:45



▲ 똑같은 양의 술을 마셔도 여성은 남성보다 혈중 알코올 농도가 훨씬 높아 주의해야 한다. 사진=다산광증양병원 제공

지난달 '알코올중독' 치료를 받던 40대 남자가 술을 마시다 여성 A씨(44세)가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두 사람은 전체 강제의 한 병원에서 치료받다 만나 친분을 쌓은 사이다. "죽을 때까지 마셔보자"는 남성 B씨(41세)의 제안에 강연도 여행을 떠났다가 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선에 도착한 이들은 곧바로 여관방에 들어가 11일 동안 술을 마셨다. B씨의 머머 "한데 술을 마시던 A씨가 죽은 것 같다"는 아들의 전화를 받고 경찰에 신고했다. 경... 음주한 당시 발간한 술병은 360ml 소주 32병과 1.8리터 소주 6병에 달했다. 360ml

2017. 4. 11

주병으로 치면 62병을 마신 셈이다. 경찰은 정확한 사인을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한 상태다. 타살혐의점은 없고 술 때문에 장기가 심하게 손상됐다는 1차 소견을 밝혔다.

이 사건은 현물인 온라인 실시간 인기 검색어까지 오르며 네티즌들의 관심을 끌며 갔다. 이에 사망한 A씨의 딸은 인터넷을 통해 "부검 결과는 한 달 정도 걸리며 아직 사할 원인은 미상"이라며 "기사의 내용이 전부가 아니란 걸 알아주길 바란다"는 글을 게시한 사건이 다시 재조명되고 있다. 이와 더불어 A씨의 딸은 "엄마가 알코올중독자는 맞으나 처음부터 그런 것은 아니다"라며 "이혼 후 불면증과 우울증으로 술에 의존하다가 중독증세를 보였다"고 말했다. 또한 "술을 마시다 돌아가신 건 맞어도 사인이 100% 술 때문은 아니다"라며 "원래 혈압, 위궤양 등 약을 드셨고, 강연으로 파나던 당시에는 약을 하나도 챙겨가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 사건에 대해, 다산광증양병원 정신건강의학과 하성태 원장은 "자기 파괴적 행동으로 죽음까지 이르게 만드는 알코올중독의 폐해와 치료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단편적 사례"라고 말했다.

알코올중독은 음주에 대한 조절능력을 상실한 뇌 질환이다. 중독 상태에 따르면 술로 인해 몸만 망가지는 것이 아니라 뇌 구조도 변화한다. 그래서 치료 시기가 놓여질수록 회복이 어렵고 스스로의 의지만으로 술을 끊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하 원장은 "이제 알코올에 중독된 뇌는 끊임없이 술에 대한 갈망을 부추기고 술을 마실 구실과 핑계를 만들어 낸다"며 "단순히 술과 격리시킨다면 퇴원 후 재음주를 하게 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평생 술을 마시지 않고 살아가는 방법을 배우는 전문 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문제는 알코올중독의 특성상 자신의 음주 문제를 자각하거나 쉽게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데 있다. 하성태 원장은 "한자 대부분이 술을 마시는 이유를 남의 탓으로 돌리거나 '나는 문제없다'며 부정하고 합리화하는 경향을 보이기 때문에 치료적 개입이 필요하다"며 "무엇보다 여성들은 남성에 비해 알코올에 더 취약한 반면 사회적 편견과 냉대로 자신의 음주 문제를 숨기는 경향이 있어 주변의 관심과 도움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일반적으로 여성은 위점막 알코올 분해효소(ADH)가 남성보다 적어 알코올의 흡수 비율이 높다. 또한 체지방 비율은 높은 반면 수분 비율이 낮아서 혈중 알코올의 농도가 훨씬 더 높게 나타난다. 하 원장은 "여성도 선천적인 차이로 남성에 비해 알코올 의존이 빠르게 진행되고 신체적 질환도 훨씬 빨리 악화된다"며 "이번 사건처럼 같은 양의 술을 마셨더라도 사망에 이를 가능성이 더 높다"고 말했다. 하 원장은 이어 "알코올중독은 술을 마시는 누구나 걸릴 수 있는 질환으로 적절한 치료를 받으면 회복도 가능하다. 특히 여성의 경우 감성적인 문제를 술로 해결하는 경향이 높으므로 여성의 심리를... 이러한 전문 치료를 병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3. 개입 및 사후관리(재발) 미흡으로 인한 문제

“40대 여성, 죽음까지 몰고 간 ‘알코올 중독’...치료법은 무엇인가?”

내용

= 지난달 알코올중독 치료를 받다 친분을 쌓은 남녀 중

여성 A씨(44세)가 사망하는 사건 발생

= 남성 B씨(41세)의 음주 제안에 62병 가량의 음주 후,

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 전문가는 알코올 중독환자가

“부정하고 합리화하는 경향을 보이기 때문에

치료적 개입이 필요하다며, 무엇보다 사회적 편견과 냉대로

자신의 음주 문제를 숨기는 경향이 있어 주변의 관심과 도움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05

외국 사례 및 해결방안



영상

MODERN TIMES PPT.

썰전
본방송

음주치사 처벌 강화, 윤창호 법 통과!
각 나라의 음주운전 처벌은?

jtbc

시공초월 썰전

각 나라의
음주운전 처벌





외국 사례

세계 행복 보고서 156개국 유엔 발표

행복하고 잘 사는 나라의 공통점 = 철저한 “음주규제”

외국의 음주규제 위한 정책



1위 핀란드
주류 전문점 판매
밤 9시 이후 주류판매 금지
평일에는 술을 안마심



2위 노르웨이
주류 전문점 판매
평일에 술 안마심
밤 9시 이후 주류 판매 금지



3위 덴마크
슈퍼마켓 편의점 주류판매

외국의 음주규제 위한 정책



4위 아이슬란드
주류 전문점 판매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주류 판매



5위 스위스
주류 전문 판매점
18%이하의 맥주, 와인,
사과주 만 16세 허용



6위 네덜란드
성인 90% 음주
책임음주 철저 예방교육 의무화

외국의 음주규제 위한 정책



7위 캐나다
주류 전문점 판매
허가된 곳에서만 주류 구입과
음주 가능



8위 뉴질랜드
공공장소 음주시 거액 벌금
술집에서 정해진 시간에 음주



9위 스웨덴
주류 전문점 판매
오전 9시 오후 6시까지 주류 판매



10위 호주
주류 전문점 판매
야외 음주 금지 음주예방 철저

한국의 음주규제 정책 문제



57위 대한민국
24시간 주류 판매
한해 술 소비 천문학적
음주사고 세계 최고

즉, 외국은 나이 뿐만 아닌, 술을 구매하는 장소, 시간까지 규제하는데에 반해
한국은 나이만을 규제하고 있어 음주 사고의 심각성이 부각됨을 알 수 있음

국가별 공공장소에서의 음주 행위 규제 현황(WHO)

(○ : 완전규제, △ : 부분규제, X : 규제없음, □ : 자발적 규제)

구분	학교	정부 기관	의료 기관	레저 행사	공원 및 거리	대중 교통	종교 장소	스포츠 행사	직장
캐나다	□	□	□	△	○	○	□	△	□
태국	○	○	○	X	△	△	○	X	X
중국	□	□	□	△	X	X	△	△	○
일본	□	□	□	□	□	□	□	□	□
뉴질랜드	X	X	X	□	□	□	X	□	X
러시아	○	○	○	○	○	○	○	○	△
호주	△	□	□	△	△	△	□	□	△
프랑스	△	△	△	△	△	○	△	△	△
영국	X	X	X	X	△	△	X	△	□
대한민국	X	X	X	X	X	X	X	X	X

세계보건기구의 국가별 음주행위 규제 현황에서 알 수 있듯이,

한국은 공공장소에서의 음주 행위에 대해 자발적 규제조차 하고 있지 않음

해외의 음주규제 정책

미국

- ✓ 주류가격 상승 및 태도, 지식 실천 등에 대한 교육 실시 제도화
- ✓ 최소음주연령법 (National Minimum Drinking Age Act)
→ 대부분의 주에서 21세 이하의 주류구입, 보유, 음주를 금지하고 있음

일부 주에서는 주류 판매점, 술집 등의 취업 또한 금지하고 있음

이러한 알코올의 주류접근성 제한정책은 효과적이며,
시행에 드는 비용도 적은 편임

영국

- ✓ 주류판매면허제법 제정
→ 국가에서 면허를 받은 사람만 주류를 판매할 수 있도록 함
- ✓ 음주폐해정책 실시
→ 주류판매 가능 시간을 지정하여 알코올 공급 통제함

이 밖에 제공되는 서비스

- = 알코올 문제를 가진 대상자 조기선별 및 진단
- = 보건의료인력의 알코올 인식 변화 및 전문능력 증진
- = 치료 서비스의 질적 개선, 서비스 수요와 공급의 적절한 연결
- = 표준 치료체계 마련 및 지도감독의 기준 강화

EU(유럽연합)

✓ 유럽알코올전략(European Union Alcohol Strategy)

= 유럽에서는 **지역사회 협력 기반**의 유럽알코올전략을 발표하였음

= 유럽연합의 각 회원국 대표들은 국가알코올정책 및 전략위원회를 구성하고,
알코올 관련 문제들을 감소시키기 위한 **정보, 지식, 정책사례 등을 공유**하고 있음

✓ 세계보건기구의 유럽지역사무소와 협력하여,

유럽연합알코올정보시스템(EUSAH)을 구축하고 주기적으로 조사를 실시하고 있음

✓ 유로케어

: 유럽 내의 정책결정자들의 알코올문제에 대한 인식을 제고 하여,

알코올문제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기 위한 **근거 중심의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 하도록 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함

✓ 정책 - 라벨링

: 제품에 알레르기 유발 효과, 성분 및 음료수에 함유 된 알레르기 효과, 성분 및 수와 함께 잠재적인 물질에 관한 병에
관한 더 많은 정보를 제시

: 소비자는 더 구입 한 제품에 대해 정보에 입각 한 선택권을 가질 권리가 있음

호주

✓ 공공장소에서의 음주금지정책

=법의 내용은 주별로 차이는 있으나,

모든 주에 공공장소음주제한정책을 적용함

=실내일지라도 공공장소 음주허가시설을 제한적으로 두어 pub,

bar, 클럽, bottle shop, 일부(음주허가)식당에서만 음주가 가능

✓ 호주의 음주제한 정책

= 주별로 음주, (오픈된) 술병 소지 금지, 음주 후 소란,

위험적 행동 모두 또는 이 중 한 가지 이상에 대하여 금지함

=판매시간, 지나친 음주 제한

✓ 위반 시 벌칙

= 경찰서의 보호조치, 술병 압수, 벌금, 퇴거 조치, 징역형 등

위반 행동에 따라 또는 해당 주에 따라 다르게 적용함

이에 반하여 한국은?

✓ 알코올의 주류접근성 제한정책을 펼치고 있으나
나이만을 제한하는 등 규제 노력은 매우 제한적



→ 청소년의 음주, 알코올 중독 만성화를 막기 어려우며,
술에 대한 관용적인 문화를 반영하는
술에 대해 엄격하지 않은 한국의 정책



우리나라의 알코올 중독 문제의 해결 방안

1. 음주의 접근을 제한하는 장소 제한, 시간 제한 정책 수립
2. 알코올 중독 관련 전문가 협력 기반 마련하여 우리나라에 적합한 맞춤형 알코올 정책 수립 필요
3. 알코올 중독의 심각성을 알리기 위한 인식교육
 - 심각성을 시민들이 인식하고 정책 수용성 ↑
 - 조기개입이 원활하게 진행 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됨
4. 알코올 중독관련 시설을 확충할 수 있는 예산과 정책이 마련되어야 함
5. 알코올 관련 서비스의 체계화와 정신병원과 알코올 중독관련 센터의 연결체계가 마련 되어야함
6. 알코올 중독만을 다루는 시설 확충



**THANK YOU
ANY QUESTION?**



참고문헌

- 국민건강통계(2018)
- 보건복지부(2017)
- 보건복지부 음주관련 정책연구(2018)
- 알코올 중독자의 심리학적 발생 원인과 대처방안에 관한 연구
- 알코올 중독 재발 요인(알코올 중독자의 재발 유형- Q방법론 김진주, 아주대학 교,[2018] [국내박사])
- 통계청(2018)
- 한국중독관리센터협회
- 통계청(2018), 사망원인통계
- 질병관리본부 등(각 년도), 청소년 건강행태온라인조사
- 질병관리본부 등(2018), 국민건강통계
- [한국청소년학회 청소년학연구 청소년학연구 제22권 제9호](#) 2015.09